

# 순천시 ‘선암사부터 순천갯벌까지’ 전 세계 알린다

순천시가 순천만과 선암사 등 지역의 자연자원의 가치를 알리는 홍보의 장에 나선다.

1일 시에 따르면 7월 19~29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순천의 유구한 역사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세계유산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비롯해 21개 위원국, 196개 협약국 대표단 등 세계유산 전문가와 기자단 30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국제 행사에서 순천시는 고유의 세계자연유산과 세계문화유산을 동시에 보유한 도시로서의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킬 계획이다.

이번 홍보부스의 주제는 '순천: 산사와 갯벌(Suncheon: Sansa and Getbol)'이다. 사유의 산책길인 '선암사'와 지구의 첫 숨을 간직한 '순천갯벌'을 두 축으로 삼아 순천의 깊은 승결과 미학을 전달하기 위해

## 내달 19~29일 부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참가

### 선암사·갯벌 매력 전달... "세계인들에 감동 선사"

계획됐다.

전체적인 연출은 따뜻한 우드톤 바탕에 유연한 천(fabric)의 질감을 매개로 활용해 자연과 전통의 조화를 시각화했다.

특히 선암사 스님들의 붉은 '가사' 색상과 순천갯벌을 상징하는 '농계의 파란색'을 강렬하게 대비시켜 한국 전통의 미와 생태계의 역동성을 한눈에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공간은 참관객이 순천의 유산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구성된다. 선암사 구역에서는 승선교를 활용한 아트월을 배경으로 기와발사, 돌탑쌓기 등 한국의 전통 불교문화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다.

순천갯벌 구역에는 실제 뱀 오브제를 활용한 설치 미술과 포토존이 마련돼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순천의 자연과 역사를 담은 구슬채득집 전시와 함께 헤드셋으로 순천만의 생생한 자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음 공간도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홍보부스는 단순히 유산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유연한 편의감각처럼 유산을 지켜온 이들의 자취와 흔적 관람객의 호흡이 하나로 포개지는 공전의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며 "과거와 현재가 가장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순천만의 미학을 통해 세계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순천시는 7월 19~29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순천의 유구한 역사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세계유산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사진은 선암사 스님의 합장 모습. 사진제공=순천시청

## 광양, 캠핑·요트·짚와이어 등 체류형 관광 축제 진행

### 12~14일 광양 망덕포구 일원서 육해공 체험 페스타

'광양 배알도 육해공 체험 페스타'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 배알도, 망덕포구 일원에서 열린다.

배알도사람들(주)이 주최·주관한 이번 페스타는 주민·관광사업자·상인이 함께 기획한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으로 캠핑, 트래킹, 요트투어, 짚와이어 체험 등을 결합해 운영된다.

행사 첫날에는 배알도별빛야영장 입실과 텐트 설치, 배알도 야경 트래킹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요트투어와 짚와이어 '삼진강별빛스카이' 체험이 운영되며, 저녁에는 캠프파이어와 문화행사가 이어진다. 마지막 날은 자유 정리 및 퇴실 일정으로 마무리된다.

참가비는 배알도별빛야영장 2박 3일

이용 기준 1팀당 9만원(5인 기준)이며, 참가 신청은 포스터 내 정보부(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배알도사람들(주)(050-6544-8814)로 문의하면 된다.

참가자에게는 요트 체험 최대 50%, 짚와이어 체험 최대 40%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야영장 인근 카페·음식점 할인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배알도사람들(주)은 배알도수변공원이 위치한 망덕마을 주민들이 지역관광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주민 주도 마을법인으로 배알도와 삼진강, 망덕포구 일원의 관광 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 연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배알도와 망덕포구 일원의 관광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고, 관광·숙박·체험·지역 상권이 연계된 민관 협력형 지역관광 모델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이 주도해 배알도와 망덕포구의 관광자원을 체험형

관광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이를 지역 상권과 연계한 민관 협력형 관광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배알도 모습

## 장성 '동학농민군 최초 승전지' 함성 재현

### 황룡승전기념공원... 폐정개혁 12개조 낭독 등

장성군은 최근 황룡승전기념공원에서 제132주년 장성황룡동학농민혁명군승전기념식을 개최했다. 장성군과 장성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의 주최·주관으로 전날 열린 행사에는 지역민과 사회단체, 도·군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장성국악협회의 농악, 난타, 한춤 공연으로 시작한 기념식은 경과 보고와 폐정개혁 12개조 낭독, 기념사, '조선의 농동자' 시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기념식의 대미인 동학농민혁명의 노래는 황룡중학교 합창단이 제창했다. 황룡승전기념공원이 있는 장성황룡전

적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군이 관군과의 전투에서 최초로 승리한 곳이다. 대나무로 만든 방패의 일종인 장태와 죽창을 든 동학농민군이 소총과 야포로 무장한 정예군에 맞서 대승을 거뒀다. 지난 1998년 국가지정 사적 제406호로 지정됐다.

심우정 장성군수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라며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동학의 가르침을 본받아, 언제나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섬기는 군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ihb6699@gwangnam.co.kr

## 보성, 시니어 의사 채용...의료 공백 최소화 앞장

### 응급의료 대응 강화

보성군은 전국적인 공중보건조사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시니어 의사를 채용해 1일부터 보건소 진료로 시작했다.

전문의 취득 후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에서 풍부한 임상 경험을 쌓은 시니어 의사는 주민 진료를 비롯해 국가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등 지역보건의료사업 전반을 수행할 예정이다. 군은 응급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

영을 위해 공중보건의를 우선 배치하고 응급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야간·휴일 취약 시간대 응급 대응체계 유지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보성아산병원과 별교삼호병원 응급실의 24시간 운영을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지속하며 지역 응급의료 공백 최소화에도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공의 감소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니어 의사 채용과 응급실 지원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8@gwangnam.co.kr

## 영암, 전남 첫 간호·복지사 전용 기숙사 공급

### 30실 마련...월 15만원 임대료

영암군이 지역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의 안정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고자 건립한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의 신규 입주자 모집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거 시설은 지난 2022년 전남도가 주관한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 공모사업에 영암군이 최종 선정되면서 추진된 결과물이다. 영암읍 동무리 일원에 동지들 투 이 기숙사는 지상 4층 규모로 총 30개 호실이 조성됐으며, 전남에서는 최초로 도입된 보건복지 종사자 전용 주거 인프라라는 점에서 상당한 정책적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 야간 교대근무 수행 빈도가 높은 간호 인력들의 특수한 근무 환경이 설계 과정에 대폭 반영됐다. 사생활 보호

와 철저한 휴식 보장을 목적으로 전 세대가 '1인 1실' 형태로 배치됐으며, 입주 즉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냉방고, 에어컨, 세탁기를 비롯해 옷장고 신발장 등 필수 가전·가구가 빌트인 방식으로 전면 무상 완비됐다.

대상은 영암 내 민간 기관에서 종사 중인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들이다.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임대 조건은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15만원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이는 주변 민간 주택 시세와 비교해 매우 저렴한 조건이다. 입주 신청은 오는 6월 10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군은 객관적인 점수 선정 방식을 거쳐 6월 15일 당첨자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상세 일정 및 구비 서류는 군청 공식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영암=서승용 기자 biz@gjdream.com

## 화순, 여름철 재난 대비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 상황별 정보 신속 공유...취약지역 사전점검 등 강화

화순군은 여름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청사 소회의실에서 이호범 부군수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경찰, 소방,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제7391부대,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유관기관 관계자 22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기관별 여름철 재난 대응 추진상황 공유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시 협력체계 구축 △산사태·침수 우려 지역 예방 강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주민 대피 지원 △응급복구 장비 및 인력 지원 체계 마련 △민·관·군 합동 대응체계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참석 기관들은 재난 발생 초기부터 상황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 함평, 신규 농업인 'AI활용 마케팅 교육' 호응

### 디지털 기술 접목...홍보 콘텐츠 제작 등 만족도 향상

함평군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6년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 기술교육'이 호응을 얻고 있다.

1일 군에 따르면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AI 활용 농업 마케팅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AI를 활용한 농산물 홍보 콘텐츠 제작 △온라인 판매 전략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기법 등이 소개됐다.

이날 교육생들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AI 활용 마케팅에 관심을 보이며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현재 센터는 △품목별 기초 재배기술 △소토역량 강화 △농산물 라이브커머스 활용법 △스마트팜 기술 △농산물 가공법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실용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3월 개강한 '2026년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은 총 61명의 교육생이 참여하고 있다.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는 급변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술과 AI를 접목한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경모 함평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으로도 최신 농업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을 통해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겠다"며 "귀농·귀촌인과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와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규 기자 6263739@gwangnam.co.kr



### 중국 후저우시 청소년

### 영암시 문화 홈스테이 체험

영암군은 최근 자매도시인 중국 후저우시 행지중학교 학생 10명을 초청해 청소년 문화교류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교류는 국제 자매도시 간 우호를 다지고 미래세대의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영암여고 학생 가정에서 2박 3일간 머물며 한국의 생활문화와 학교생활을 체험했다.

학생들은 영암 도착 후 홈스테이를 시작했으며, 영암여고 환영식에 참석해 또래 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가이급과 태권도 수업에 참여하며 한국 전통문화를 경험했다. 또 전통 천연염색 체험장에서는 염색과 공예를 체험하고, 목포 해상케이블카를 탑승하며 남도의 해양경관과 관광자원도 둘러봤다.

군은 이번 홈스테이 교류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올해 하반기 영암여고 학생들의 후저우시 방문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암=현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